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January 2025 Issue | Vol. 01

SPECIAL POINTS OF INTEREST

- IMF: 필리핀, 사업 및 인구통계에서 도전 과제 직면 —page 1
- 2024년 필리핀 제조업 부문, 강력한 성장 기록 —page 1-2
- 필리핀, 2025년에도 '견고한' 성장 지속 전망 — 싱크탱크 —page 2-3
- PPA, 강한 수요로 올해 화물 및 승객 수송량 지속 성장 전망 —page 3-4
- 2025년 필리핀 경제를 형성하는 주요 트렌드 —page 4-5
- 외국인 투자 마케팅 계획, 1월까지 완료 예상 —page 5-6

IMF: 필리핀, 사업 및 인구통계에서 도전 과제 직면

January 02, 2025 | Keisha Ta-Asan | The Philippine Star

마닐라, 필리핀 —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필리핀은 비즈니스 환경, 인프라 및 노동 시장에서 중요한 격차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 투자 유치와 생산성 성장 촉진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IMF는 보고서에서 필리핀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들에 비해 비즈니스 환경 및 인프라를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복잡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동등한 수준을 보이지만, 경제 개방성, 비즈니스 규제 개혁, 전기 접근성, 물류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라고 이 다자간 대출 기관은 전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필리핀의 금융 시장은 신용 제공 및 금융 시장 규제와 관련하여 적어도 상위 중소득 국가들만큼 잘 운영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ASEAN 회원국들보다는 미흡한 수준입니다,”라고 IMF는 밝혔습니다.



In a report, the IMF said that the Philippines has room to improve its business environment and infrastructure relative to its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peers.

STAR / File

필리핀은 또한 인구 보너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2024년 말까지 부양비가 5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양비는 014세 및 65세 이상의 인구를 1564세 인구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필리핀의 생산가능인구는 약 2045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적절한 정책 환경이 마련된다면, 이는 경제 개발과 가정 복지를 위한 투자 자원을 확보하고, 성장 촉진과 1인당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은 2050년까지 약 1,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이는 연간 약 4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정책 우선순위에는 양질의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 고용 기회 강화, 졸업생과 노동 시장 수요 간의 기술 불일치 문제 해결이 포함됩니다.

“필리핀의 노동 시장 규제는 다른 국가들보다 성장 친화적이지만, 노동 생산성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뒤처지고 있습니다,”라고 IMF는 언급했습니다.

또한, 투자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리핀은 규제 품질, 책임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G20 신흥 시장을 능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ASEAN 회원국들에 비해서는 뒤처지고 있습니다.

IMF는 반부패 노력 강화와 법치 개선이 비즈니스 확실성을 높이고, 공정한 계약 집행을 보장하며,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1/02/2411194/imf-philippines-faces-challenges-business-demographics>

2024년 필리핀 제조업 부문, 강력한 성장 기록

January 02, 2025 | Anna Leah Gonzales | Philippine News Agency

마닐라 – 필리핀 제조업 부문은 생산량과 신규 주문의 강력한 성장이 주도하며 2024년을 긍정적으로 마감했다고 S&P 글로벌이 목요일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필리핀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12월에 53.8에서 54.3으로 상승했으며, 이는 2017년 11월 이후 가장 강력한 수치로, 2022년 4월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Cont. page 2]

2024년 필리핀 제조업 부문, 강력한 성장 기록

[Cont. from page 1]



MANUFACTURING GROWTH. Undated photo shows workers in an apparel manufacturing plant located at the Mactan Export Processing Zone in Cebu province. The Philippine manufacturing sector closed 2024 on a high note according to S&P Global. (Photo courtesy of MEPZ Workers Alliance)

“필리핀 제조업 부문은 2024년을 긍정적으로 마감했으며, 수요의 추가적인 개선이 신규 주문과 생산량의 급격하고 중요한 증가를 가져왔습니다,”라고 S&P 글로벌 시장 정보의 경제학자 마리암 발루크는 말했습니다.

PMI는 제조업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S&P 글로벌은 생산량과 신규 주문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두 지표는 유사한 속도로 성장해 2022년 4월 이후 가장 강력한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력한 성장은 견고한 기초 수요 추세, 제품 다각화, 신규 고객 유치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국제 시장으로부터의 수요도 증가했으며, 이는 5개월 만에 신규 수출 주문이 증가한 첫 사례입니다.

“기업들은 생산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구매 활동을 확대했습니다. 12월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된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11월에 관찰된 급등에서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실제로 비용 부담과 생산량 요건은 역사적으로 낮은 속도로 상승했습니다,”라고 발루크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발루크는 생산 효율성이 제조업체들이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게 했지만, 고용이 약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며, 특히 2025년 동안 수요가 예상대로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면 더욱 그렇습니다,”라고 발루크는 덧붙였습니다.

올해 기업들은 수요 추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희망과 신제품 출시 계획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https://www.pna.gov.ph/articles/1240876>

필리핀, 2025년에도 '견고한' 성장 지속 전망 — 싱크탱크

December 31, 2024 | Ben Arnold de Vera | Manila Bulletin

필리핀은 2025년에도 견고한 경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가격 상승 속도의 둔화와 금리 인하가 소비자 지출을 촉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한 것입니다. 싱크탱크인 캐피탈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강한 소비는 2025년에 또 다른 견고한 성장의 해를 보장할 것입니다,”라고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수석 아시아 경제학자 가레스 리더와 조교수 해리 챔버스는 12월 30일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이들은 필리핀의 국내총생산(GDP)이 2024년 3분기 동안 예상보다 빠른 1.7% 분기 대비 증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GDP는 2024년 4월~6월 분기에서 분기 대비 0.5% 증가한 바 있습니다.

2024년 7월~9월 분기의 연간 GDP 성장률은 5.2%로, 이는 5분기 만에 가장 느린 성장률이었습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2024년 10월~12월 분기 GDP 성장률이 1% 미만으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뒤, 2025년 각 분기마다 1%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연간 GDP 성장률 측면에서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2024년 성장률을 5.4%로 예상했으며, 이는 2023년의 5.5%에서 둔화된 수치입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5.8%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부의 2024년 목표인 6%에서 6.5%와 2025년 목표인 6%에서 8%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신흥 아시아 경제국 중 필리핀의 가까운 미래 성장률은 베트남과 방글라데시를 제외하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11월 필리핀의 인플레이션은 다시 2.5%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목표 범위인 2%에서 4% 내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라고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언급했습니다. [Cont. page 3]

MANILA BULLETIN

필리핀, 2025년에도 '견고한' 성장 지속 전망 — 싱크탱크

[Cont. from page 2]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2024년 12월 회의에서 세 번째로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우리는 2025년에도 추가로 100bp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라고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덧붙였습니다.

특히,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2025년 첫 분기부터 25bp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현재 5.75% 정책금리가 2025년 말까지 4.75%로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의미합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BSP 정책금리 전망은 연간 물가 상승률이 2023년 6%에서 2024년 3.2%, 2025년 2.8%로 추가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한 것입니다.

앞서 마닐라 볼레틴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싱크탱크는 필리핀 페소가 2025년 말까지 62:1로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필리핀 증권거래소 종합지수(PSEi)는 2025년에 7,500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ource: <https://mb.com.ph/2024/12/31/think-tank-solid-25-growth-seen>

PPA, 강한 수요로 올해 화물 및 승객 수송량 지속 성장 전망

January 02, 2025 | Ashley Erika O. Jose | BusinessWorld



The Philippine Ports Authority (PPA) expects continued growth in cargo and passenger volume this year. — PHILIPPINE STAR/WALTER BOLLOZOS

필리핀항만청(PPA)은 수요가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화물 및 승객 수송량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PPA는 2025년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해운 및 해상 화물 시장의 다양한 부문에서 성장이 기대됩니다,"라고 PPA의 제이 다니엘 R. 산티아고 총괄 매니저는 비버(Viber) 메시지를 통해 BusinessWorld에 밝혔습니다.

그는 국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소비자 수요가 해상 화물 및 해운 서비스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PPA는 화물 처리량이 3억 1,470만 미터톤(MT)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지난해 목표인 2억 8,856만 MT보다 4.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반영하며, 이는 필리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집니다,"라고 산티아고 총괄 매니저는 말했습니다.

PPA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화물 처리량은 7.3% 증가하여 2억 1,828만 미터톤(MT)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억 3,51만 MT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 화물 중 외국 화물은 64%인 1억 4,021만 MT를 차지하며, 국내 화물은 36%인 7,807만 MT를 차지했습니다.

9개월 동안 PPA는 수입 화물 8,038만 MT를 처리했으며, 루손 항만이 그 중 절반 이상인 4,315만 MT를 처리했습니다.

수출은 9월까지 5,983만 MT에 달했으며, 그 중 2,890만 MT는 북부 민다나오 항만을 통해 처리되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PPA는 572만 TEU(20피트 길이 환산 단위)의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했으며, 이는 2023년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 대다수인 374만 TEU는 외국 컨테이너에서 발생했으며, 국내 컨테이너는 197만 TEU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산티아고 총괄 매니저는 PPA가 예상되는 크루즈 도착을 수용하기 위해 크루즈 터미널 인프라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산티아고 총괄 매니저는 "PPA는 2024년 목표인 7,800만 명에서 2025년 말까지 승객 수송량이 9.5% 증가한 8,54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승객 수는 10.3% 증가하여 6,047만 명에 달했다고 PPA의 최신 데이터가 보여주었습니다. [Cont. page 4]

PPA, 강한 수요로 올해 화물 및 승객 수송량 지속 성장 전망

[Cont. from page 3]

PPA는 크루즈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전용 항만 개발을 포함한 항만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향후 4년 동안 PPA는 140억 페소를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으로 배정할 예정이며, 이 중 14개의 주요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이번 주 초, PPA는 오리엔탈 민도로의 푸에르토 갈레라에 706.05백만 페소 규모의 크루즈 선박 항만을 건설하기 위한 입찰 초대를 발표했습니다.

산티아고 총괄 매니저는 "정부의 국내 여행 촉진 및 항만에서의 승객 시설 개선 추진은 승객 수송량의 증가 추세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글로벌 무역량과 연료 비용 변동성은 해운 및 항만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식 시장 분석가인 토비 앨런 C. 아르세(글로벌링크 증권 및 주식의 판매 거래 담당)는 전했습니다.

아르세 분석가는 "해운 및 항만 운영 부문은 본질적으로 글로벌 무역량, 연료 비용, 지정학적 안정성 및 규제 변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은 그들의 수익에 변동성을 추가합니다."라고 비버 메시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는 상장된 항만 운영업체인 국제컨테이너터미널서비스(ICTSI)가 국내 인프라 개발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며, 체슬리 물류 및 인프라 홀딩스(Chelsea Logistics and Infrastructure Holdings Corp.)는 국내 및 지역 교통 회복에 따라 성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글로벌 플레이어인 ICTSI는 국제적인 노출을 활용하여 수익원을 다양화하고 국내 리스크를 완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아르세 분석가는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1/02/644353/ppa-eyes-sustained-growth-in-cargo-passenger-volumes-this-year-on-strong-demand/>

2025년 필리핀 경제를 형성하는 주요 트렌드

January 01, 2025 | Joefel Ortega Banzon - The Freeman | The Philippine Star

CEBU, 필리핀 — 2025년을 앞두고 필리핀 경제는 흥미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음은 다가오는 해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간략히 살펴본 내용입니다.

필리핀 경제는 2025년에도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몇 년과 비교해 다소 둔화된 속도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필리핀의 GDP 성장률이 약 6.0%에서 6.5% 사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신호지만 팬데믹 이후의 빠른 회복 속도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업, 제조업, 인프라와 같은 주요 분야는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미국 및 중국과 같은 주요 국가들의 경제 둔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는 수출과 비즈니스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시아 개발은행(ADB)과 세계은행은 필리핀의 2025년 성장률을 적당히 예측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 둔화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동시에 인프라 지출과 국내 회복에 의해 마련된 강력한 기초를 강조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려의 대상이었던 인플레이션은 2025년에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격은 안정될 것으로 보이며, 인플레이션은 약 3-4%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가격 안정을 유지하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금리를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 통계청(PSA)과 BSP는 2025년에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인 2-4%에 맞춰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초점이었던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는 2025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새 도로, 다리, 공항, 항만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국적인 교통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 기후 저항성 구조물 등 "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더욱 강한 집중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경제와 환경 모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 경제 개발청(NEDA)과 공공사업 고속도로부(DPWH)는 "Build, Build, Build" 이니셔티브 하에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계속 유입되면서 야심찬 인프라 프로그램을 수립했습니다.

2025년에는 지속 가능한 또는 "친환경" 투자에 더 많은 중점이 두어질 것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환경 자연 자원부(DENR)와 기후 변화 위원회(CCC)는 필리핀의 파리 협정과 같은 글로벌 기후 협약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친환경 투자를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의 디지털 경제는 2025년에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며, 일상 생활에서 기술과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온라인 뱅킹, 교육과 같은 분야는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이며, 기술 기반 일자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Cont. page 5]



The Philippine economy is expected to continue growing in 2025, but at a slower pace compared to recent years. Experts predict the country's GDP to grow by around 6.0% to 6.5%. Key areas will help drive growth, however, global issues in major countries might affect exports and business activity.

FILE PHOTO

2025년 필리핀 경제를 형성하는 주요 트렌드

[Cont. from page 4]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하여 이러한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의 확산은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Google Philippines와 필리핀 국가 ICT 연합(NICP)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플랫폼의 급속한 성장이 강조되었으며, 2025년에도 더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일하거나 쇼핑하면서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필리핀 경제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동향으로 인한 도전과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무역 긴장 고조, 다른 국가의 경기 침체 위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는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유연성을 유지하고 경제를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기타 글로벌 경제 단체들은 필리핀의 수출입 의존도와 관련하여 글로벌 무역 긴장과 공급망 중단이 미칠 잠재적 영향을 지적했습니다.

2025년 필리핀 경제는 인프라, 디지털 기술, 지속 가능성에 대한 투자 덕분에 안정적인 성장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경제적 위험과 기후 변화와 같은 도전과제가 있겠지만, 일자리 창출, 사회 서비스 개선,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집중은 국가가 긍정적인 궤도를 유지하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2025년은 필리핀의 지속적인 회복과 발전의 해가 될 것입니다.—(FREEMAN)

Source: <https://www.philstar.com/the-freeman/cebu-business/2025/01/01/2410946/key-trends-shaping-phl-economy-2025>

외국인 투자 마케팅 계획, 1월까지 완료 예상

January 01, 2025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투자위원회(BoI)는 외국인 투자 홍보 및 마케팅 계획(FIPMP)을 내년 1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oI 국제 투자 홍보 서비스의 라니 O. 도미엔도 국장은 기자들에게 FIPMP가 공청회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12월 13일을 마감일로 설정한 이유는 정부 간 투자 홍보 조정 위원회(IIPCC)가 내년 1월까지 FIPMP를 확정하려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녀는 최근 브리핑에서 말했다.

도미엔도 국장에 따르면, FIPMP는 BoI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 홍보 기관이 집중적으로 홍보할 우선순위 분야를 제시할 것이라고 한다.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도 IIPCC의 일원이며, 이 계획에는 목표가 명시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지난달, BoI는 동남아시아의 치열한 경쟁에 대응하여 필리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초안 FIPMP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요청했다.

이 마케팅 계획은 필리핀의 강점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는 우수한 영어 능력, 강력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산업, 그리고 우대 무역 협정이 포함된다.

또한, 인프라 문제 및 규제 불확실성과 같은 투자 장벽으로 인식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이러한 강점을 명확히 전달하고 약점을 해결함으로써 필리핀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목적지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FIPMP 초안은 밝혔다.

“이 홍보 및 마케팅 계획의 실행을 통해 필리핀은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5% 증가시키고, 2028년까지 매년 추가적으로 1%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9월 FDI 순유입이 36.2% 감소한 3억 6,8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개월 동안의 FDI 순유입은 3.8% 증가한 66억 6,000만 달러에 달했다.

초안에 따르면,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실행 계획의 수립이 전략의 다음 단계가 될 것이다.

“이 실행 계획은 이 계획에서 논의된 전략을 기반으로 캠페인의 성공적인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결과물을 실현하거나 생성할 것입니다.”라고 초안은 밝혔다.

“여기에는 내부 자원의 강화, 정부 파트너십의 향상, 그리고 계획 목표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최적화가 포함됩니다.”라고 덧붙였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01/01/644303/foreign-investment-marketing-plan-expected-for-completion-by-january/>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SGV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SGV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How can the technology that has shaped our world, now save it?

Business has the power to harness data and technology to create value for business, society and the planet.

Value-led sustainability is everybody's business. Make it yours.

■ ■ ■ ■

The better the question. The better the answer.
The better the world works.

In everything we do, we nurture leaders and enable businesses for a better Philippines.
#SGVforABetterPhilippines
www.sgv.ph

Scan to access
SGV's Sustainability Report, Doing Business and other publications